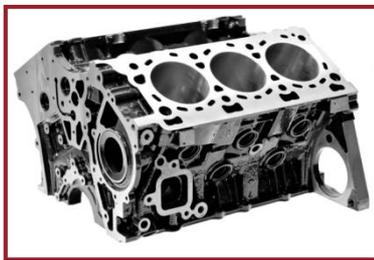


보도자료
즉시배포

Hyundai 는 여섯번째 연속생산 시작과 함께 아시아 CGI 리더십을 확장

- 12.7 리터 CGI 실린더 헤드 연속생산 시작
- 3.0 리터부터 12.7 리터에 이르기 까지 여섯 가지의 SinterCast-CGI 부품 연속생산
- Hyundai 전주공장 그리고 대동금속에서 SinterCast 시스템을 활용한 CGI 부품 생산



3.0 litre S-Engine cylinder block



5.9 litre G-Engine cylinder block



12.7 litre L-Engine cylinder head

[스톡홀름, 2014 년 12 월 16 일] – 세계 5 위 자동차 생산 메이커인 Hyundai Motor Company 가 대형 상용차 12.7 리터급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Compacted Graphite Iron (CGI) 재질로 적용하여 연속생산을 시작했다. 2006 년 Hyundai 의 첫번째 CGI 엔진 프로그램인 3.0 리터 V-6 엔진을 탑재한 Hyundai 및 Kia 의 LUV 를 한국 국내시장 적용을 시작으로, 12.7 리터 L-엔진 실린더 헤드는 Hyundai 에서 여섯 번째로 적용되는 CGI 연속생산 이며, Hyundai 는 아시아에서 CGI 리더십 위치를 확장하고 CGI 부품생산에서 세계 2 위를 차지 하게 되었다. 3.0 리터 S-엔진 실린더블록 과 12.7 리터 L-엔진 실린더 헤드 뿐만이 아니고, Hyundai 는 2007 년부터 3.9 리터 F-엔진 과 5.9 리터 G-엔진을 탑재한 상용차량의 실린더블록에 CGI 재질을 적용 하였으며, 2011 년부터 5.9 리터급 고성능 차량 과 10.0 리터급 H-엔진의 실린더 헤드 역시 CGI 재질을 적용 하였다. Hyundai 의 모든 CGI 부품은 한국 내 위치한 Hyundai 전주공장 및 대동금속에서 SinterCast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Hyundai 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CGI 생산 장비를 적용한 공장이며, CGI 성능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세계적 선두 주자입니다. 5.9 리터, 1.0 리터, 그리고 12.7 리터 CGI 실린더 헤드는 파워와 토크를 증대 시켜 내구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린더 헤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이다. CGI 실린더 헤드의 소재는 기존의 주철공장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며, 가공은 기존 주철 가공라인과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주철을 CGI 재질로의 대체함으로써 엔진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배출 법규를 만족 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 이며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 한다.”라고 SinterCast 의 사장인 Seteve Dawson 박사는 말하였다.

더많은 정보는 :

Dr Steve Dawson
President & CEO

Tel: +46 8 660 7750

e-mail: steve.dawson@sintercast.com

SinterCast 사는 Compacted Graphite Iron 의 양산을 위한 프로세스 제어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주철 및 알루미늄 재질과 비교하여 75% 이상의 인장강도, 45% 이상의 강성 과 두배 이상의 피로 강도를 갖는 CGI 재질은 엔진 설계자에게 엔진 무게 저감, 소음 및 배기 가스를 줄이면서, 성능, 연비, 내구성 향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SinterCast 기술은 12 개국에 40 대의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주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의 실린더 블록과 승용 차량을위한 배기 가스 부품; 상용차량의 중형 및 대형 실린더 블록 및 헤드; 그리고, 선박, 철도, 오프로드 엔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엔진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어진다. SinterCast 의 연속생산은 2kg 에서 9 톤에 이르기까지 입증 된 공정 제어 기술을 사용한다. SinterCast 주식은 스톡홀름 NASDAQ OMX 증권 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sintercast.com 을 참조하세요

끝